

“예수께서 옹공스럽게 이르셨재. “아파메 수고가 많으시요이...”

한국 최초 전라도 방언으로 성경 번역

강진 출신 시인 임의진 목사
‘마가복음 전남방언’ 펴내
제주항공 참사 때 두 누이 희생
어린시절 함께 나눈 사투리 추억
역사·문화 투영 ‘남도 방언의 보고’

“예수께서 옹공스럽게 이르셨재. “아파메 수고가 많으시요이. 거시기 인자부텨 저를 따라땡기셔 야 쓰셨소. 지비들을 물고기가 아니라 사 람을 낚는 쩌한 어부가 되게 해드릴텡게.” (마가복음 전남 방언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한 구절을 전라도 방언으로 옮긴 내용이다. 문어(文語)로는 다소 생소하지만 귀로 들으면 구어(口語)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 같다. 적어도 전라도를 토대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든다.

전남은 남도 방언의 보고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은 오랜 세월 이어온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투영돼 있다. 사투리를 들으면 정감이 가고 왠지 친숙해지는 느낌이다.

시인인 임의진 목사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목회지를 따라 강진과 해남 등지를 떠돌며 자랐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다보니 교인들 품에서 자랐는데 보통 할머니 권사님들과 지냈다. 그 일찍부터 ‘사투리 영재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CNN 동시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사투리를 모두 소화해냈다.

임 목사가 최근 전남 방언으로 마가복음을 옮긴 ‘마가복음 전남방언’ (대한기독교서회)을 펴내 화제다.

임 목사는 과거 강진에서 남녘교회라는 교회 목회를 했고 이후 2005년부터 담양 수북면 산골짜기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낸다.

“그동안 전라도 먼민으로 살면서 시골분들의 어투를 오래 익혔는데 전라도말을 수집해오면서 개인 노트를 만들고 그랬어요. 사라져가는 말들이 아깝고 아쉬웠죠.”

그가 이번 ‘마가복음 전남방언’을 펴내게 된 이유다. 이번 성경에는 해안가에서 쓰는 사투리, 저자가 태어난 바닷가마을 방언을 주로 담았다.

그는 “서울에서 신학을 배울 때 들은 이야기인데 표준말을 써야 교인들이 좋아한다”면서 “목사들은 어디로 부임할지 모르는 신세이니 지역 방언에서 벗어나 표준어를 쓰도록 훈련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라도로 다시 내려와 바다 사람들과 어우렁어우렁 지냈다”며 “나는 말만으로도 즐거운 세월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번 책을 내게 된 데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도 있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



임의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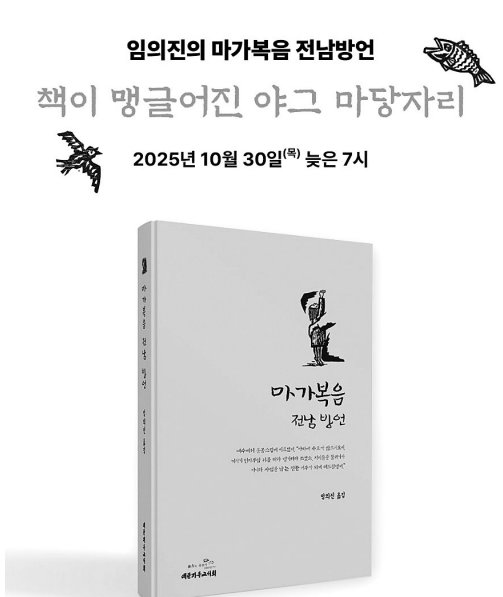
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그는 두 누이를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한동안 망연자실했었다”는 말에서 먹먹함이 느껴졌다.

“당시 유가족들이 목사인 저를 의지하고 그랬다”며 이후 기억시민모임을 만들어 함께하고 있다. 한편으로 “누이들과 전화로 또는 가끔 만나면 사투리를 쓰며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 어린시절 교회에서 같이 자라며 배운 사투리를 쓰곤 했는데 그 생각이 깊이 났다”며 “마가복음을 우리 지방말로 옮기게 된 것은 마치 가족들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경 66권 가운데 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방언으로 옮기게 됐을까. 임 목사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신약 가운데 가장 처음에 쓰여졌으며 내용도 기묘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많은 기적 부분은 빼졌고, 병 고침도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신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실제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과 같고, 죽음조차도 놀라운 변화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의 장황함과 달리 마가복음은 매우 전개가 빠르지요. 또 예수님은 아람어 곧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마가복음엔 기어코 그 사투리를 남겨놓았죠. ‘달리타 쿼’와 같은 말이 그러한 예죠. 유대나라의 지방 방언 사용자였던 예수님의 말을 예루살렘 서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오해가 더 커지는 법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가난한 바닥 사람들 민심을 못 읽고 날이면 날마다 고급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다가, 술김 헛김에 계엄도 해서 나라가 망할 뻔 보기도 했던 것이 얼마 전 일이지요.”

전남 방언에는 특유의 리듬감이 있어 마치 노래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판소리가 그 대표적 구현이다. 그는 “이번 책은 마치 판소리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노랫가락을 나눔 같은 말투요



말씨다”라며 “장식적인 말보다 고스란히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독 전남 방언의 소멸 속도가 다른 지방보다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소멸도 가장 많고, 거기다 정권부침 권력부침도 심해서 기운 운동장에 사회 하층 부류 사용언어처럼 자금심을 잃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책을 펴내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각장마다 읽기 쉽게 각주를 달았던 점이다. 또한 뒷면에는 방언사전을 따로 실었다. “언어학적으로도 성서번역사로도 전남방언 번역은 한국 최초”라는 말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오래 전 강진을 떠난 뒤로는 목회자보다는 예술가의 삶을 지향했다. 광주에서 메이홀을 열고 이매진 순례자학교를 세우면서 교회보다는 시민사회 대안운동에 매진했다. 또한 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문득문득 “가난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갈릴리에서 목회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복음서를 전라도말로 번역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며 이번 작업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교회 변혁의 작은 불쏘시개’라고도 될까 싶어 공교회로 다시 복귀했다. 교회협(NCCK) 가맹교단이자 우리나라 유일한 자생 민족교단인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총무로 매주 서울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바쁜 생활이지만 남도의 산골짜에서 잠을 잘 때 가장 편하다”는 말에서 그의 내면에 드리워진 ‘전라도 정서’가 주는 치유의 한 단면이 읽혀졌다.

한편 ‘책이 맹글어진 야고 마당자리’ (출판기념회)가 오는 30일(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카페꿈마파랑새안과점에서 열린다. 또한 서울 인사동 인덱스에서는 오는 11월 25일~12월 2일 ‘임의진·전정호·홍성담 3인 판화전-가난한 사람들의 말씀 쓰기’가 열린다. 개막식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6시.

한편 그는 광주일보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 살 순례기’를 연재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음악의 ‘흥’으로 여는 연말 무대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4,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그린국악 무대의 한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어느새 무드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 남도의 소리가 가을 풍경을 물들인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이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터에서 토요일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4를 선보인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흔을 담은 소리를 그리다(The spirit of Pansori)’. 전통의 원형을 충실히 지켜내면서도 동시대적 감각을 덧입힌 무대로 꾸려진다. 판소리와 남도민요, 국악 실내악과 농악 등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11월에는 굵직한 기획 무대가 이어진다. 11월 8일에는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정기공연 ‘스무 해의 울림-알록달록 피어나는 우리의 꿈’을 무대에 올린다. 어린 단원들이 준비한 수어 민요 ‘남도뱃노래’, 25현 가야금 3중주 ‘개는 변주곡’, 조흥동류 소고춤, 창작 연희극 등 신작 레퍼토리를 대거 선보인다.

11월 22일에는 도립국악단의 창곡 ‘新聲-다시

피어난 꽃’이 무대에 오른다. 도립국악단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창곡 무대로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 시공간 속에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익숙한 인물들이 오늘날의 삶 속으로 옮겨와 펼쳐내는 드라마틱한 서사는 전통과 현재를 잇는 강렬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흥보가·적벽가 같은 판소리의 정수, 새롭게 편곡된 남도민요와 국악 실내악, 호남 농악 ‘개인놀이단’ 등 계절의 정취를 담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한가위를 앞두고 새로운 시즌을 열게 돼 의미가 깊다”며 “국악의 뿌리와 미래를 아우르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따뜻한 감동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전남도립국악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 1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주는 날것의 생명력

박철영 시인 네 번째 시집 ‘노동은 푸른 산소다’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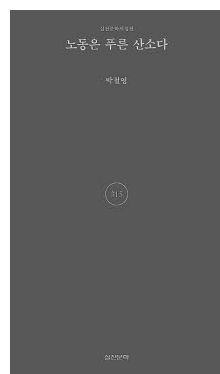
박철영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노동은 푸른 산소다’(살천문학)를 펴냈다.

30여 년 넘게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서 일하다 정년을 마친 그는 현재는 여수 울촌공단 현장에서 여전히 노동자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노동자 시인’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그의 작품은 노동현장에서 체화된 감성을 자신만의 언어로 구현한 시들이 대부분이다. 투박하면서도 다소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주는 날것의 생명력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관념의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생의 발목이 편지 않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고/ 푸른 이파리의 나무를 심듯/ 본래의 모습처럼 단순해지는 것/ 땀을 흘려 얻은 그만큼을/ 아끼고 또 아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것(후략)”

표제시 ‘노동은 푸른 산소다’는 노동에 대한 시



인의 철학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노동은 소중한 이들과 지구를 살리는 행위이며, 한 방울의 땀은 곧 생명력을 복원하는 매개체로 치환된다.

고선주 시인은 해설에서 “시적 기교나 장치들이 과도했다라면 노동 현장에 대한 전경

이 많이 망가졌을 텐데 시인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 데 주력한다”고 평한다.

한편 남원 출신의 박철영 시인은 ‘현대시문학’에 시, ‘인간과 문학’에 평론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시집 ‘비오는 날이면 빗방울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 등과 평론집 ‘해체와 순응의 시학’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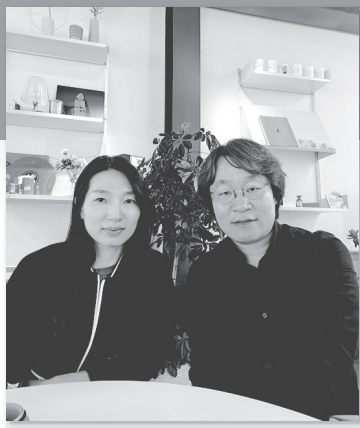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